

"떼쓰는 아이"와의 힘겨루기에서 현명하게 탈출하기

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손경화

가족들과 기분 좋게 쇼핑 나왔다가 예기치 않은 아이와 언쟁으로 낯뜨거운 상황을 연출하고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돌아온 적이 한두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. 심한 경우에는 아이와의 다툼으로 같이 간 남편, 그리고 다른 자녀와의 관계까지도 악화되어 집안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.

떼쓰는 아이에게 때로는 상황적 무시가 효과적이다!

〈상황〉

대형마트에 간 지윤이가 자신이 원하는 뽀로로 인형을 사 달라고 조르고, 안 사주겠다고 말하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다. 이때 아빠는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난처하다며 그냥 사주라고 하고... 쇼핑을 때마다 사달라는 것을 다 사줄 수는 없는 지윤이 엄마는 난감하고~



위와 같은 상황은 누구나 경험하는 상황일 것입니다.

말을 배우면서 이전에 '울음'이라는 표현적 수단 대신 '언어'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출하며, [자율성]을 향한 투쟁으로 완강한 거부나 떼쓰기 등의 행태를 보입니다. "싫어", "안돼", "내꺼야" 등과 같은 자신의 행동을 요구하는 과장된 표현을 넘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, 공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합니다.

이때 가장 먼저, 아이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 주십시오. 그러나 그 요구사항이 부모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면 명확하고 단호하게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. 그 때 아이는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가질 수 없는 그 자체 때문에 더 크게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, 신발을 벗고, 온 몸을 바닥에 내뒹굴면서 울어댈 수도 있습니다. 이때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.

대부분의 부모들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아이와의 힘겨루기에서 지고 맙니다. **그 상황을 무시해 보십시오. 상황적 무시(situational ignore)란 그 공간 안에서 잠시 떠나 그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.** 물론 아이는 부모가 자리를 뜨는 그 순간 더 크게 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미 아이에게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한 상태이므로 아이 또한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. 한발짝 두발짝 아이에게 멀어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줄어들고,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을 아이 스스로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지요

인격적 무시는 더 큰 화를 부른다!

상황적 무시를 하라고 하니 어떤 부모님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회피(avoidance)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조건 안 들어주는 부모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다고 판단하고 더 큰 반항심과 공격적 성향을 보이거나, 반대로 죄책감과 회의를 느껴져 무기력해지고, 소극적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**인격적 무시(personality ignore)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왜 사줄 수 없는지, 그리고 떼를 쓴다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.** 우리가 생각없이 말하는 “엄마는 못 사 주니깐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봐.”, “도대체 집에 인형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달라고 하는 거니?” 등과 같은 반응은 서로의 감정을 소모시키고,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

논리적 추론(logical reasoning)으로 부모-자녀 소통하기

떼쓰기를 할 때 부모가 보이는 행동은 크게 [애정철회]와 [권력행사]가 있습니다. 애정철회(love withdrawal)는 자녀에게 더 이상 애정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양육행동으로, “네가 만일 또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”라고 반응하는 방식입니다.

반면, 권력행사(power exercise)는 체벌이나 위협 등 힘을 사용하는 훈육방식입니다. **애정철회와 권력행사대신 논리적 추론을 사용해 보십시오. 논리적 추론(logical reasoning)은 자녀에게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, 자녀의 옳지 못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.**

떼쓰는 상황에서 “우리 지윤이가 진열대에 놓인 뽀로로 인형이 갖고 싶구나. 그런데 우리집에도 비슷한 인형이 있는 것 같은데, 지윤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고 떼쓰니 엄마가 참 난처하고, 힘들구나. 지윤이가 사람들이 쇼핑하는 마트에서 울고 떼쓰니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, 쇼핑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 같네”라고 얘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어머니의 감정과 상황을 전달하고,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면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